

HANARO

ETF Monthly

August. 2026

반도체를 둘러싼 우려와 반전의 기회

Contents

01. HANARO Insight

반도체를 둘러싼 우려와 반전의 기회

02. 8월 추천상품

03. HANARO ETF 수익률 TOP5

반도체를 둘러싼 우려와 반전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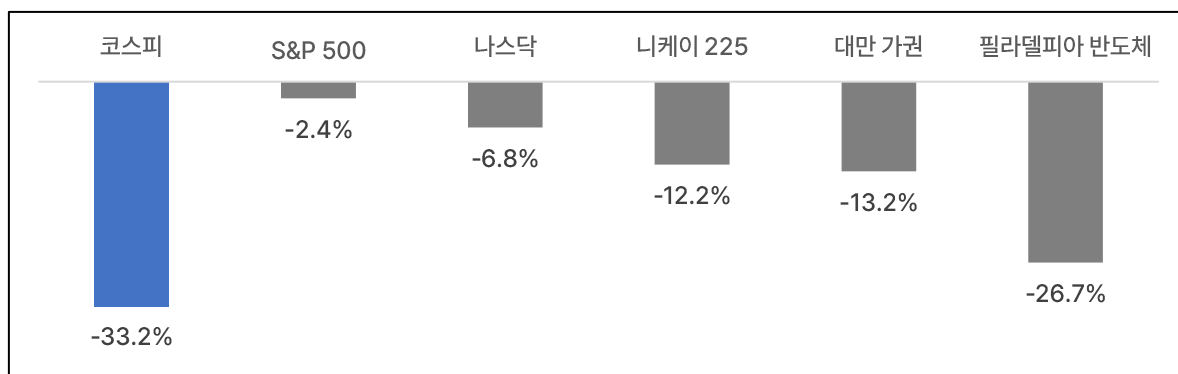
▷ 7월 코스피, 반도체 고점 논란에 이은 역대급 하락장

반도체주 중심의
유례없는 하락장

7월 국내 주식시장은 반도체 대표주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하락을 기록하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6월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넘어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는 7월 들어 하락 반전하기 시작해 한달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7월 28~29일은 이를 연속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될 정도로 이례적인 하락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7월 한달간 코스피는 -33.2% 하락하였으며, 이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월간 낙폭(23.13%)과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낙폭(27.25%)수준에 필적하는 큰 하락입니다.

한달 이상 진행되는 금번 하락세는 상반기 급등한 반도체 가격의 정점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 Kimi 3로 촉발된 저렴한 중국 모델의 위협 및 AI인프라 투자의 지속성과 반도체 사이클 피크아웃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적인 악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HANARO Monthly 에서는 최근 불거진 악재들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7월 시장 변동 - 주요 증시 대비 하락폭이 큰 한국 주식시장



자료: Dataguide, 기간 (26.07.01~26.07.29)

▷ 코스피 Circuit Breakers 발동 이력 - 역대 15회 발동. 올해만 9회(7월에 4회)발동

회차	일자	주요원인	회차	일자	주요원인
1	'00.4.17	미 증시하락	9	'26.6.8	美금리인상우려로반도체주급락
2	'00.9.18	미 증시하락, 유가급등	10	'26.6.23	美 기술주 약세
3	'01.9.12	미 9.11테러	11	'26.6.26	美 빅테크주 약세
4	'20.3.13	코로나19 팬데믹	12	'26.7.7	반도체관련주차익실현매물출회
5	'20.3.19	美증시하락및코로나19영향	13	'26.7.13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6	'24.8.5	美증시하락	14	'26.7.28	美 반도체 관련주 약세
7	'26.3.4	美-이스라엘-이란 사태	15	'26.7.29	반도체 관련주 급락 등
8	'26.3.9	중동발유가급등영향등			

자료: 한국거래소

반도체를 둘러싼 우려와 반전의 기회

▷ 반도체 가격 상승률 둔화와 Peak-out 공포

반도체 가격
상승률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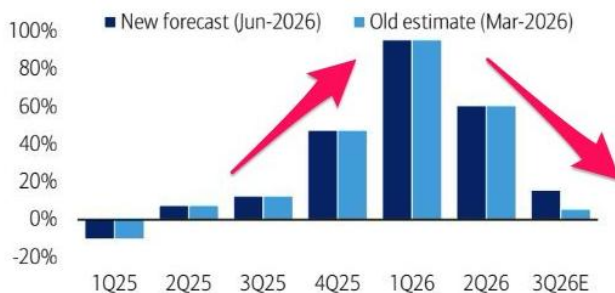
시장의 우려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자체의 하락이 아니라, 상승률의 둔화 가능성입니다. 트렌드포스 (TrendForce) 등 주요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DRAM 가격은 2분기에도 58~63% 추가 상승이 예상되나, 3분기 이후부터는 상승 기울기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소비자의 지불 의사 한계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도 이와 궤를 같이합니다. DRAM의 주요 수요처인 휴대폰 등 세트 기업들은 현재의 높은 메모리 가격을 소화할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가는 가격 자체보다는 변화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승률이 완만해지는 새들포인트(saddle point)가 단기 주가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주가 하락의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 현지 언론을 통해 레노버에 이어 ASUS, MSI, ACER, 기가바이트 등 주요 대만 PC 업체들이 중국산 메모리(CXMT)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최근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지속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속되는 것 또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분기 DRAM 가격 변동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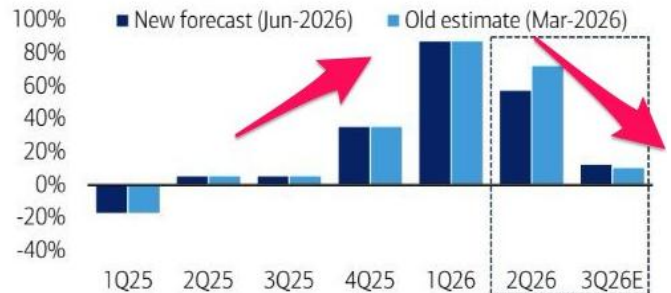
TrendForce DRAM ASP forecast (QoQ change) – Jun-26 update vs Mar-26



출처: TrendForce. 2026.06
리포트 발간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분기 NAND 가격 변동률 추이 및 전망

TrendForce NAND ASP forecast (QoQ change) – Jun-26 update vs Mar-26



출처: TrendForce. 2026.06
리포트 발간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계약으로
안정성 확대

다만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는 둔화되나, 이를 메모리 업황 전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은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계약으로 통해 높은 수요가 지속됨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7월 초 진행된 2분기 실적발표에서 장기공급계약(LTA)비중이 전체 공급계약 내 30%까지 확대되며 장기 실적에 자신감을 내비쳤으며, SK하이닉스 또한 7/29 실적발표에서 중장기 공급을 위해 10여개 고객사와 장기공급계약 협상을 마무리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서 6월 실적발표를 진행한 마이크론은 주요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3~5년 기간의 장기공급계약 16건을 체결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장기공급계약 확대는 가격 변동에 따라 실적 변동이 확대되거나 때로는 적자를 감수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산업의 구조적 안정성 확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고객들을 장기 계약으로 묶어 둘 수 있을 정도로 현 시점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률 둔화가 곧 메모리 사이클의 정점 우려 이어지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우려와 반전의 기회

▷ AI인프라 투자 지속성 우려와 해석

AI인프라 투자 지속성 우려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문샷 AI의 새로운 오픈웨이트 모델 Kimi K3가 미국 클로드 등 프론티어 모델과의 성능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는 평가가 확산되며, 대규모 CAPEX 투자의 당위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 점도 작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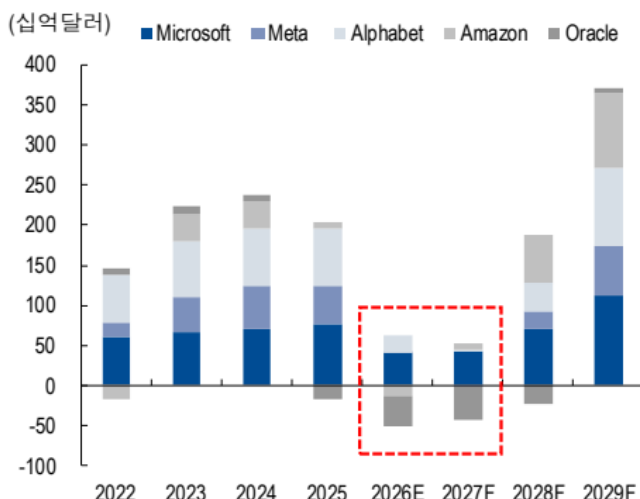
특히 Kimi K3로 촉발된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의 부상은 OpenAI, 앤트로픽 등 프론티어 모델의 마진을 압박하고 결과적으로 AI 인프라의 수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통상 이러한 모델간 경쟁 심화와 오픈소스 확대는 인프라 관련주에 수요 저변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어야 하지만, 최근 자체 현금흐름을 통한 투자 외에 유증, 회사채 등 외부 자금조달로 인한 투자 확대 및 업계가 서로 투자-매출로 얽힌 순환구조 등 AI인프라 업계의 자금조달 취약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국 모델의 위협이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으로 이어진 점은 다소 과장된 측면 또한 존재합니다. 문샷 AI의 Kimi는 미국 프론티어 모델 대비 API 단가가 낮지만, 절대적 성능 및 비용 편의 관점에서는 우위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Kimi를 포함한 중국 모델들은 연산 효율은 높지만, 에이전트 AI의 추론 최적화 및 작업 완수 신뢰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 모델 대비 열위인 수준입니다. 특히 문샷 AI 역시 컴퓨팅 파워 부족으로 신규 구독을 전면 중단한 것을 고려하면, 추론이 중심이 되는 현재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컴퓨팅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한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여력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쟁적인 AI인프라 확장은 현금 창출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무리한 투자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알파벳 등은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 외부 자금조달까지 동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이들 우려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정작 당사자들은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올해 5대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는 7,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내년에는 1조달러 이상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오히려 2026년 자본지출 전망을 상향했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분기 마다 자본지출 계획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 하이퍼스케일러 FCF추이 및 전망



주목할 점은 이들 하이퍼스케일러가 자본지출을 '소진되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으로 전환되는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의 가동과 급증하는 토큰 수요가 막대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에 근거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현금흐름도 2028년 이후에는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블룸버그, 기준일: 2026.07.27
리포트 발간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우려와 반전의 기회

하이퍼스케일러 2Q실적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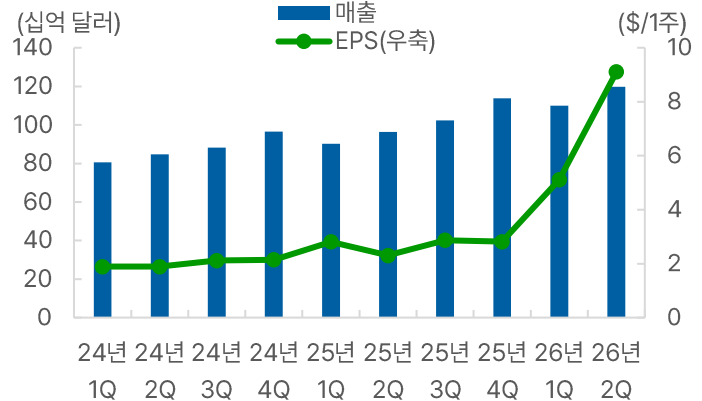
실제로 7월 마지막주 진행된 미국의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26년 2분기 실적발표에서는, **AI인프라의 수익 성과 CAPEX 지속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번 실적발표는 결국 7월 Monthly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큰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Computing is Revenue"**가 어느정도 입증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즉 'AI 팩토리'를 보유하여 컴퓨팅 파워를 타사에 판매할 수 있는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긍정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글(알파벳)은 26년 2Q 매출 및 주당 순이익 둘 다 예상치를 상회하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플랫폼이 기업들의 AI 솔루션 및 컴퓨팅 인프라 수요가 늘어난 것에 힘입어 실적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구글은 26년 CAPEX 전망치를 1,950억~2,0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할 만큼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클라우드 수주 잔고는 전분기 대비 증가한 5,1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기업들의 예상보다 빠른 AI 도입으로 인한 컴퓨팅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른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동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Azure의 연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수주 잔고 역시 6,870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동사는 26년 CAPEX 계획은 유지하며, FCF를 흑자 상태로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현금 관리계획을 내세운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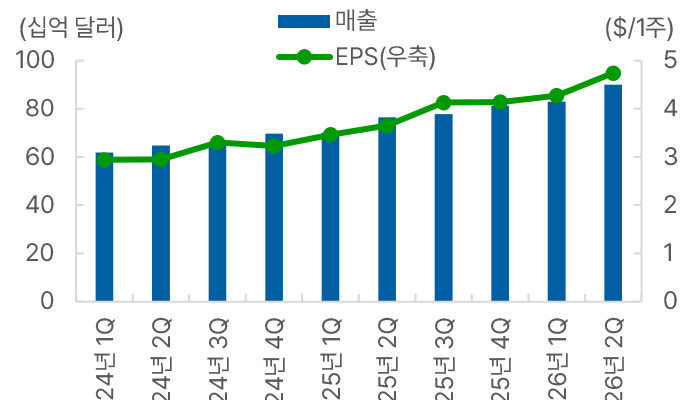
아마존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가 AI 사업의 확대를 바탕으로 성장하면서 18분기 만에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매출과 주당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아마존은 26년 CAPEX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AI 투자 의지를 드러낸 동시에 현금흐름이 적자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8년까지 컴퓨팅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알파벳 분기별 매출 및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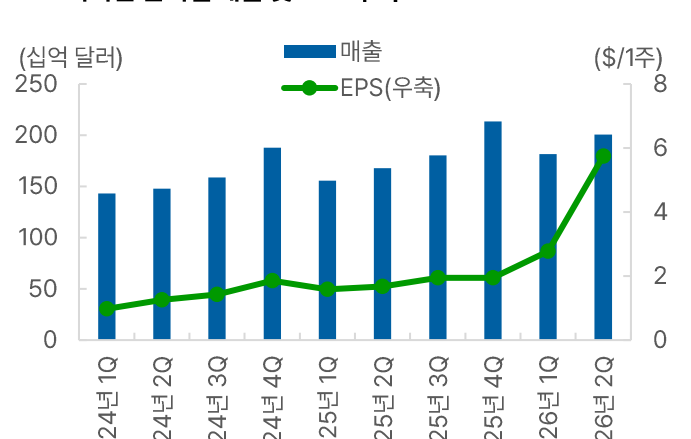
출처: Alphabet, NH-Amundi자산운용 / * 기준일: 2026.07.30

마이크로소프트 분기별 매출 및 EPS 추이



출처: Microsoft, NH-Amundi자산운용 / * 기준일: 2026.07.30

아마존 분기별 매출 및 EPS 추이



출처: AMAZON, NH-Amundi자산운용 / * 기준일: 2026.07.30

반도체를 둘러싼 우려와 반전의 기회

한편 메타는 26년 2Q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증가한 비용을 매출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하였습니다. 여기에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영업마진이 낮아진 가운데, 현금 흐름 역시 대폭 감소한 것이 악재로 인식됐습니다.

메타는 AI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 개선으로 광고 효율성을 제고했으나, 클라우드 플랫폼이 부재하면서 AI 및 관련 컴퓨팅 인프라를 수익으로 전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타는 이에 개인·기업용 AI 에이전트, 모델 API, 구독제 및 클라우드 진출 등을 신규 사업으로 제시하였으며, **인프라 투자 지속 의지**를 밝혔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신규 AI 사업이 창출하는 수익이 현재의 CAPEX를 정당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빅테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볼 수 있으나, AI클라우드 인프라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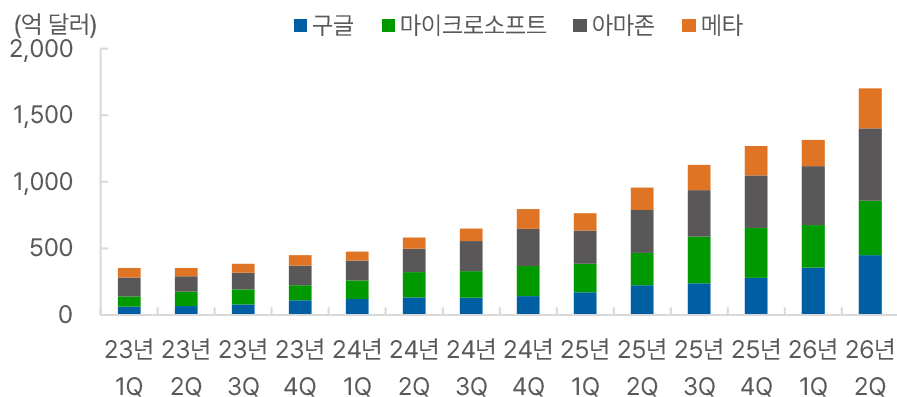
이처럼 AI로 인한 “Computing is Revenue” 내러티브는 유효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빅테크들의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AI인프라 산업이 과거 산업혁명에 비견되는 대규모 경제 전환을 가져온다면, 한두해에 걸친 현금흐름의 감소가 투자 기조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I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메타 분기별 매출 및 EPS 추이



출처: META, NH-Amundi자산운용 / * 기준일: 2026.07.30

■ 미국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추이



출처: Bloomberg, NH-Amundi자산운용 / * 기준일: 2026.07.30
리포트 발간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우려와 반전의 기회

▷ 중국 CXMT의 상장과 중국 반도체의 부상

중국 메모리 기업 CXMT상장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7월 27일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창반에 상장하며 첫날 공모가 대비 약 470% 폭등, 장중 시가총액 700조 원에 육박하며 중국 본토 증시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4위 D램 업체인 CXMT가 대규모 자금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대비 저렴한 범용 D램의 생산을 확대할 경우, 범용 D램 가격 하락과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7월 28일 국내 반도체주 급락의 직접적 방아쇠가 바로 이 CXMT 상장이었습니다.

CXMT의 부상은 분명 장기적으로 주시해야 할 위협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이 지금 시장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 우선 CXMT가 확대하는 생산능력은 상당 기간 중국 자국 내 수요를 충당하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산 메모리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이 내수만으로도 CXMT의 초기 캐파는 상당 부분 소진됩니다. CXMT의 범용 메모리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과잉공급으로 이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추가로 CXMT는 HBM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비 2~3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프리미엄 시장은 당분간 기존 메모리 3사의 우위가 지속될 것이며, 미국AI데이터센터가 CXMT의 HBM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CXMT가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위협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협의 방향은 인정하되, 그것이 수년 내 한국 반도체의 실적을 훼손한다는 판단은 과도할 것입니다.

➤ 선두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언급한 보도 자료

How CXMT Makes Chips Without the World's Most Advanced Equipment

The distinction that matters: ASML's EUV systems use 13.5-nanometer-wavelength light to expose chip circuitry in a single pass, achieving the finest feature sizes with high yield. ASML has [never shipped an EUV machine to China](#), and Dutch export regulations — maintained under US pressure since 2019 and tightened in October 2022 to cover advanced DUV tools as well — prohibit it from doing so.

CXMT compensates using deep-ultraviolet multi-patterning: 193nm-wavelength tools that print circuits by running each layer through two to four separate exposure passes — techniques called self-aligned double patterning and self-aligned quadruple patterning (SADP/SAQP). Each additional pass accumulates small overlay errors and adds manufacturing steps, which reduces yield and raises cost-per-bit relative to single-pass EUV production. CXMT's current leading node achieves roughly 16 nanometer cell size — equivalent to what Samsung and SK Hynix were producing around 2018 to 2019, [placing the process-node gap at approximately two to three generations behind today's leaders](#), according to independent analysis by TechInsights and Seoul Economic Daily.

자료: Techtimes, 기준일 2026.07.27

반도체를 둘러싼 우려와 반전의 기회

▷ 반전의 기회 - 악재는 가격에 반영되었고 반등 여건은 조성되고 있다

긍정적인
2Q 실적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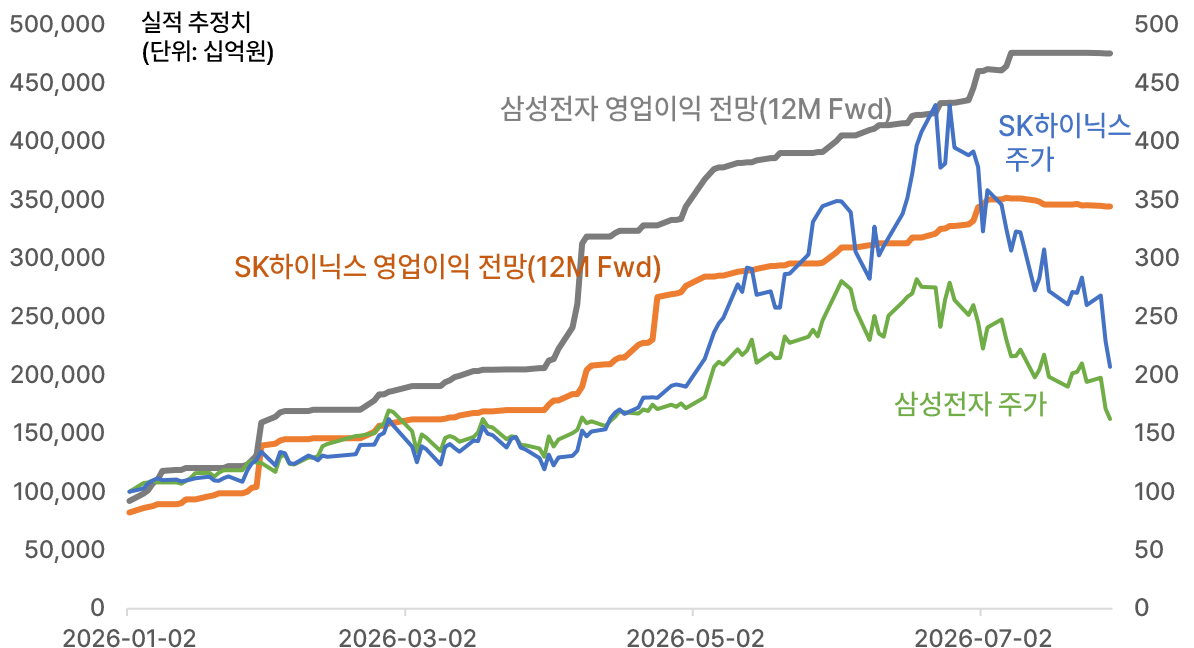
7월 30일 기준 메모리 반도체 3사의 2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은 긍정적인 전망을 지지합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을 발표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7월 29일 2분기 매출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 60조 5,426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57%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76%에 달했으며, 상반기 누적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직전 분기 영업이익률 8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최근 고점 대비 40% 넘게 하락했으며, SK하이닉스는 한 달 사이 시가 총액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주요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와 목표주가는 큰 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이고 이익 전망은 유지되는데, 주가만 40% 빠진 것입니다.

최근 시장 하락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등으로 증폭된 극심한 변동성이 특징입니다. 다만 급격한 조정으로 시장의 우려가 상당부분 가격에 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향후 반등 기회를 모색할 여건은 조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반도체 섹터는 뚜렷한 실적개선과 펀더멘털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소 과열된 투자 열기가 되돌림 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과 견고한 가이드스를 내는 기업이 고점 대비 40%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는 국면은, 반대로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높은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수 있으나 AI가 주도하는 장기적인 성장 내러티브가 유효한 만큼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실적 추정치에 비해 과도하게 하락한 주가



기준일: 2026.07.29, 자료: 데이터가이드
주가: 2026.01.02 가격을 100p로 환산해 표시

HANARO Fn K-반도체 국가대표 반도체 ETF, K-반도체 대표기업 20종목에 투자

투자포인트

K-반도체 산업을 하나로, 국내 반도체 대표기업에 투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AI밸류체인 특화된 K-반도체에 투자

AI시대 핵심 전략 인프라로 격상된 K-반도체의 위상, 메모리 반도체 수퍼사이클

편입종목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1	SK하이닉스	26.50
2	삼성전자	26.15
3	SK스퀘어	21.19
4	삼성전기	15.38
5	한미반도체	1.93
6	주성엔지니어링	1.05
7	이수페타시스	0.95
8	리노공업	0.79
9	원익IPS	0.73
10	DB하이텍	0.62

- 기준일 26.07.29, 신한아이타스
- 상기 포트폴리오는 향후 운용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재되었습니다. ETF 거래 수수료,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	HANARO Fn K-반도체					
종목코드	395270					
상장일	2021.07.30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비교지수	FnGuide K-반도체 지수					
위험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					
수탁/사무	하나은행/한국펀드서비스					
보수	운용	AP,LP	수탁	사무	합성총보수	증권거래비용
	0.36	0.05	0.02	002	0.5087	0.0256

HANARO 미국AI메모리반도체TOP4+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더욱 촘촘하게

투자포인트

AI발전의 핵심 인프라 메모리, 스토리지

DRAM, 낸드플래시, HDD – 소수 과점사업자의 글로벌 지배, 업사이클 장기화

메모리 수퍼사이클, K-반도체의 성공사이클을 완성하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편입종목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1	Micron Technology	20.58
2	Seagate	15.75
3	Western Digital	14.57
4	Sandisk	13.69
5	Silicon Motion	7.63
6	ASML	6.26
7	KLA	6.01
8	Lam Research	5.79
9	ASE	5.54
10	Amkor	3.61

- 기준일 26.07.29, 신한아이타스
- 상기 포트폴리오는 향후 운용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시후 1년 이내 상품으로 기타비용 미기재. ETF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	HANARO 미국AI메모리반도체TOP4+					
종목코드	0181B0					
상장일	2026.05.12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비교지수	Solactive US AI Memory Semiconductor Top4+					
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수탁/사무	HSBC/한국펀드파트너스					
보수	운용	AP,LP	수탁	사무	총보수	
	0.30	0.01	0.02	0.02	0.45	

3. HANARO ETF 수익률 TOP5(3개월)

기준일: 2026.07.29

ETF명	투자포인트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 3M 수익률(세전) +5.84%	종목코드: 401590 규모: 58억 상장일: 2021.09.30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격적인 탄소 감축 목표 -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탄소배출권 시장의 확대와 투자 기회
HANARO 유럽방산 3M 수익률(세전) +4.90%	종목코드: 0082F0 규모: 76억 상장일: 2025.07.29	-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유럽 안보지형의 변화에 따른 유럽의 국방비 지출 증대 - 자주 국방을 위한 유럽 방위산업의 투자 기회
HANARO 글로벌생성형AI액티브 3M 수익률(세전) +3.83%	종목코드: 461340 규모: 421억 상장일: 2023.07.11	- AI발전에 따른 혁신성장 산업에 투자 - 반도체, AI인프라, AI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AI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HANARO 글로벌럭셔리S&P 3M 수익률(세전) +2.06%	종목코드: 354350 규모: 107억 상장일: 2020.05.12	-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와 고객 경험 제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에 있는 글로벌 명품기업 - 변화하는 명품 소비 트렌드에 따라 성장하는 럭셔리 기업에 투자
HANARO 미국S&P500 3M 수익률(세전) +1.94%	종목코드: 432840 규모: 156억 상장일: 2022.06.08	- 글로벌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 - 개인, 기관투자자의 장기 자산배분의 필수 자산인 S&P500 인덱스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타스,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1003호 (2026.07.31~2027.07.30)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 인사이트 및 추천 상품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 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TF 거래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추적오차 및 괴리율이 확대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전망자료는 현재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는 이 금융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본자료의 구성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